

한·일 정상 “셔틀외교 재개 공감”

일, 수출규제 조치 해제
한, WTO 제소 취하 합의
화이트리스트 회복 논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6일 양국 정상이 정례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 외교’를 재개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은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50분부터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에 들어갔다. 23분간 극소수 인사만 참석하는 소인수 회담을 진행한 뒤 곧바로 확대 회담을 이어갔다.

먼저 기시다 총리가 확대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 기회가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일 정상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셔틀외교를 재개하는 데 일치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 양국 협력을 위해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정부 간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 “심각한 도발 행위”라고 비난한 뒤 이런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께서 말씀하신 양국의 셔틀외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또 “그간 여러 현안으로 어려움을 겪던 한일관계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을 양국 국민에게 알려드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한국과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은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반이 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지금 양국의 협력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오늘 아침 도쿄로 출발하기 전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보듯이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도 큰 위협”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서로 긴밀히 공조하고 연대해 이러한 불법적인 위협과 국제 사회 난제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며 “회담에서 그간 정체된 한일관계를 협력과 상생 발전의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익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일본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해 취한 수출규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6일 한일 정부가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14~16일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과 제9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했다. 공식적으로는 한일정상회담 당일인 이날 오전까지 사흘에 걸쳐 정책 대화가 이뤄졌지만, 주말을 포함해 비공식 협의를 긴밀하게 이어왔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한일 정부는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합의를 ‘한일 공조의 주춧돌’로 표현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일본 도쿄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번 합의는 단순히 수출규제 조치 해소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한일 간에) 신뢰 구축의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내렸다. 이들 3개 품목은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중요한 소재다.

일본은 같은 해 8월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배제했고, 이에 한국은 그해 9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北, 한일정상회담 겨냥 ICBM 발사

화성-15형 발사 이후 약 한 달만...軍 “대비태세 유지”

북한이 한일정상회담이 예정된 16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였던 한일관계가 개선의 계기를 맞는 데 대해 불만을 표출하면서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은 자신들한테 있음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7시 10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도쿄로 향하기 약 3시간 전이다.

이 미사일은 정상각도(30~45도)보다 높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

합참은 비행거리만 공개했다. 일본 방위성은 미사일이 최고 고도 6000km까지 솟구쳐 70분 가량 비행했으며 한반도에서 동쪽으로 약 550km 떨어진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ICBM을 쏜 것은 지난달 18일 화성-15형 발사 이후 약 한 달만이다. 군은 이 미사일이 ICBM 화성-17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현재까지 탐지된 사항을 근거로 보면 화성-17형과 유사하다”면서도 “다만 일부 탐지된 제원상에 일부 차이가 있어서 한미가 긴밀히 공조하에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일본 출국 직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분명히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이에 대응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날 오후 일본 도쿄의 숙소에 도착한 직후에도 현장에 설치된 상황실을 방문해 화상 회의를 열고 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들도 이날 3차 유선 협의를 하고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출국 전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역대 긴장을 심각하게 고조시키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탄한 뒤 3국 간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서 강화하기로 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하에 계획하고 있는 연합연습과 훈련을 강도 높고 철저히 시행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반도체산업 육성 ‘K칩스법’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통과
세액공제 대상 수소·미래차 추가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문턱을 넘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마라톤 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세액공제 대상에는 반도체 이외에도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미래형 이동수단 산업 등이 포함됐다.

조세소위는 구체적으로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이동수단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개정안에 명시했다.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세액 공제 대상에 넣는 것은 민주당의 요구사항이었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 상황을 고려, K칩스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가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덕유산에 43.5km ‘영호남 숲길’
거창군 “상호교류·균형발전 견인”

경남 거창군 덕유산에 영호남 숲길이 조성된다. 거창군은 16일 덕유산 숲길 조성을 위한 타당성 평가 및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용역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의 산림종합기술본부에서 제시한 거창군 고제면~북상면~위천면을 통과하는 43.5km의 기본 노선 및 부분별 노선안에 대해 논의했다.

거창군은 올해 설계용역이 마무리되면 국·도비 등 예산을 확보해 2024년부터 둘레길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덕유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덕유산 주변을 숲길로 연결해 영호남 상호 교류와 지역 균형 발전을 견인하고자 거창, 함양, 무주, 장수 4개 군이 힘을 합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설계용역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결혼을 안 한다... 혼인 건수 11년째 감소 ▶2면

광주 도심 화물차 불법 주정차로 ‘몸살’ ▶6면

북스 - ‘제철 맞은 장날...’ ‘인조 1636’ ▶14·15면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영문대학교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The new EQS SUV

당신이 찾던 럭셔리 미래.
This is for pioneers.

MERCEDES-EQ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민중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방울대로 565(도원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QE 350+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4.3(도상: 4.5, 고속도로: 4.1) 1회 충전거리(km): 471, 공차중량(kg): 2355, 배터리 용량(kWh): 88.8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사양 및 구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